

마태복음 개관

1. 개요

마태복음은 신약 4 복음서 중 첫 번째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하며,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탄생, 공생애,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상명령까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선교,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구속사 중심의 교훈서입니다.

2. 저작 연대

- 일반적으로 주후 50~70 년경,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후로 추정됩니다.
 - 비교적 초기 복음서이며, 일부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하되 유대인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로 봅니다.
-

3. 저자

- 전통적으로 세리 출신 제자 마태(레위)가 저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 유대적 배경과 구약 인용의 탁월함,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히브리어/아람어를 아는 유대 기독교인이자 사도였음을 암시합니다.
-

4. 기록 목적

-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
-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중심의 언약 성취를 설명

-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제시
-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 위로와 사명감 부여

5. 단락 구분 (5 대 담화 구조 중심)

구분	장	내용
① 서론	1-2장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메시아적 서론)
② 제1담화	3-7장	천국 백성의 성품과 윤리 - 산상수훈
③ 제2담화	8-10장	제자 파송과 사명
④ 제3담화	11-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반응
⑤ 제4담화	14-20장	교회 공동체와 용서, 제자도
⑥ 제5담화	21-25장	종말 담화 - 심판과 깨어 있음
⑦ 결론	26-28장	수난과 부활, 지상명령

- 각 담화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7:28 등)으로 끝남
- 이는 모세오경을 연상시키는 구성으로, 예수님을 새 모세로 부각시킵니다.

6. 중심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2, 4:17)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5:17)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28:18-20)

예수는 유대인의 기대를 충족시킨 진정한 메시아이며,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는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신학적 이슈

① 구약 성취의 복음서

-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반복됨. →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왕위 계승자, 임마누엘의 성취자로 묘사됨.

② 하나님 나라의 개념

- 마태는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하늘나라)" 용어를 주로 사용 (유대인의 경건 전통 때문). → 이는 단지 내세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함.

③ 교회에 대한 언급

- 복음서 중 유일하게 "에클레시아"(교회)라는 단어 사용 (16:18, 18:17) →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동체적 적용과 실천을 지향함을 보여줌.

④ 새 모세로서의 예수

- 다섯 개의 가르침, 산상수훈, 율법의 완성 등은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요, 새 출애굽의 인도자로 제시함.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마태복음 해석

① 언약 성취와 구속사적 계시

-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구약 언약(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사야 등)이 성취됨을 보여줌 → 이는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구속사 해석의 뼈대가 됨.

②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신학

-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실현되는 실존적 통치로 설명함. → 개혁주의 교회론(visible & invisible church)과 연결됨.

③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 16 장: 반석 위에 세운 교회,
28 장: 지상명령을 받은 선교 공동체 → 교회 중심의 신학과 선교적 소명을 동시에 강조함.

④ 칭의와 성화의 통합

-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화의 윤리로 읽히며, 율법의 참된 완성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함을 가르침.